정해년(丁亥年) 새해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오랜 '낙후논쟁'을 뒤로한 채 '실리'를 찾기 위한 1년간의 힘찬 항해에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앞두고 목포 신외항에 집결한 모습이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실리찾기 8대 행동계획

낙후 타령 그만… 잘사는 법 찾자

의식 새롭게 바꿔 실리추구 일자리 창출·기업환경 조성 지역민 삶의 질 끌어 올려야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청년실업률 전국 최고 수준, 취약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현황…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말해주듯 지역민들의 삶은 고단했다. 사상 최악의 고유가와 불황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과 거리, 사무실 등 어디를 가도 절망과 피로에 찌든 표정이었다. 어딘지 활기를 잃은듯한 지역민들의 세밑 풍경에서는 침체를 넘어 침통함마저 느껴졌다. 바로 광주·전남의 낙후성 탓이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의 '멍에'가 무의식중에 지역민들의 어깨를 짓눌러온 것이다.

하지만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앞둔 지역민들의 표정에선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오랜 절망과 탄식 대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고질적인 '낙후타령'을 접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이제는 해묵은 낙후논쟁을 접고 지역민들의 역량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리찾기'에 집중시켜야 한다"며 "조선 후기의 실학이 당시 사회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실리'는 지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에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가장 큰 소망은 '잘 사는 것'이었다. 다만 올해가 '황금돼지해'인 탓인지 '부(富)'에 대한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만큼 지역의 불황과 낙후의 골도 깊었다는 얘기다.

택시기사 박신일(53)씨는 "10여년을 넘게 택시운전을 해왔지만 백화점이나 충장로, 터미널 등을 막론하고 요즘처럼 손님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며 "가끔 연말 대목 경기를 묻는 손님들이 있지만 이제는 대꾸조차 하기가 싫다"고 손사래를 쳤다.

취업준비생 정찬진(목포시 중동·29)씨도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넘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입사원서를 내봤지만 높디높은 취업벽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주위에선 황금돼지띠해다 뭐다해서 시끄럽지만 정작 나 자신은 일할 곳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오랜 실리 추구를 통해 꿈을 이룬 사람들도 많았다. 오는 2월 광주 계림동의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는 김모(44·여)씨는 "재건축 입주권에 결혼생활 10여간 모은 돈을 합쳐 새 집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집 생각만하면 2년 넘게 친정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온 고생이 한 시름에 날아가는 것 같다"고 기뻐했다.

김씨 처럼 소망을 이룬 사람들은 그 비결로 '실속'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광주·전남의 낙후 요인으로 지역민들의 '의식구조'를 들었다. '겉치레'에 치중하다보니 그만큼 '실속'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광주 충장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서진(40·여)씨는 "요즘은 전문점의 옷이 품질과 디자인면에서 손색이 없는 데도 백화점을 고집하는 의식이 여전히 높다"면서 "구도심 활성화나 충장로 프로젝트도 좋지만 브랜드에만 신경쓰는 시민들의 의식부터 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아가 광주·전남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인의 '의식 전환'은 물론, 노사분규를 줄이고 지역기업을 도와줌으로써 오랜 낙후의 한을 풀어보자는 주장이다.

최현주 광주시 경제통상국장은 "광주는 광(光)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토대로 공단분양이나 투자유치 여건조성 등 선진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고유가와 환율하락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역민들 스스로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협력업체인 A사 대표 김모(51)씨도 "기아차나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기아차에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온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올해는 '16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의 사슬을 끊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수시 중앙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정연화(39·여)씨는 "과거 여수의 중심상권이 날로 위축되는 데도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곤 주차단속 밖에 없다"며 "지역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 과격 이미지 빨리 벗자

일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이란 경영 비용과 경제 환경, 노동력 등이 우수한 곳을 일컫는다. 특히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길 경우 해당 지역민들의 성향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기업인 대부분이 '과격 이미지=강성 노조'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광주시청 앞 '반(反)FTA 폭력시위'는 광주의 과격 이미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민주성지' 광주가 '폭력도시'란 오명을 쓰면서 외지 기업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이었다. 나아가 광주·전남의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지역출신 인재들의 취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목적이 옳더라도 법을 어기는 폭력시위로는 더이상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노동자 스스로가 자각해야 한다.

2 노사분규 없는 지역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근로손실일은 사업실적을 좌우한다. 경영 환경이나 투자 인센티브가 아무리 뛰어나도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만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3분기 43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1998년 경영정상화 이후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광주공장이 '16년 연속 파업'을 이어간 것은 기아차에 지속적인 애정을 보여온 시민들에게 '적자'로 보답한 격이 됐다.

물론 사측도 건전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경제낙후의 모든 원인을 노조에 돌리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첩경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할 때다.

3 5·18정신 왜곡 말자

광주·전남의 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5·18정신을 올곧게 계승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철만 되면 당적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의 참배행렬이 이어져 '성지'인 5·18 묘역이 '정쟁의 장'이 되는가 하면 최근들어선 상당수 노동단체까지 파업전 5·18 묘역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했다. 노동운동에 5·18정신을 부각시킴으로써 노동쟁의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서다.

하지만 시민들은 5·18을 '팔아먹는' 행위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회원들이 당시 화물연대조합의 광주 집회와 관련, '평화적 집회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가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격·난폭 시위로 광주의 이미지를 망치지 말아달라'는 호소는 경제성장을 꿈꾸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4 부자·기업인 미워말자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본(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때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돈에 대한 편협된 인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기업인 등 부자에 대한 반감이다. 최근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반 기업인 정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질타한 적이 있다. 부자에 대한 반감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특히 심하다. 얼마전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불황타개책의 일환으로 '부자마케팅'을 전개했다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적이 있다. 부자는 대중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습성이 있다. 부자라는 이유로 괜한 반감을 표출할때 이들의 주머니는 더 꼭 닫힌다. 이제는 떳떳한 부자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 지역 소비를 살릴때다.

5 친절·세련미 갖추자

외지인들이 광주·전남지역의 경쟁력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이 음식이다. 굴비정식 등 맛깔스런 '남도음식'을 맛 본 외지인들은 그 맛을 잊지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다시 남도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없다. 외지출신의 광주지역 한 경제단체장은 유명식당의 불친절에 실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진정한 경쟁력은 물건의 품질과 그 것을 포장하는 서비스에서 나온다. 지역경제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남도음식을 비롯해 우리가 가진 좋은 자산에 친절과 세련미를 더해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6 지역 대학생 실력 길러라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은 가고 이구백(이십대 90%가 백수)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광주지역 청년실업률도 일반의 2배가 넘는 10%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52.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은 여러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내에 이들을 채용할 기업이 많지 않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규모와 과격한 지역 이미지 등이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력의 핵심인 지역 대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7 지역기업 도와주자

최근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자치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취약한 경제 기반과 각종 사회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브랜드나 외향을 중시하는 지역민들의 정서와 지역민들의 강성 이미지 등도 외지 업체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자체의 유치노력과 함께 시민들 스스로가 지역기업을 도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의 미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업체도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생산성과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업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8 공무원들 경제 첨병되라

새해에는 공무원들이 경제 첨병으로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남부대가 지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응답자의 14.1%가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전략에 따른 각종 혜택' 차이로 수도권행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공무원의 경제 마인드가 변하면 세금면제, 투자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가 생기고 기업유치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대규모 디스플레이 공장유치를 위해 무리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업유치에 실패한 담양군의 사례에서 보듯 성과위주의 투자유치는 지양해야 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실리찾기 8대 행동계획

하나투어 HANATOUR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07년 謹賀新年

세계가 인정한 하나투어를 만들어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글로벌 여행종합그룹으로서 세계 1등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 여행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광 주

반도관광 (대표:선정식) [501-024] 광주 동구 금남로4가50번지 ☎ 062-223-3032
하나투어세정아울렛점 (대표:서원주)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1326 세정아울렛 3층 ☎ 062-464-8000
이마트 광산점 (대표:김진일) [500-080]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98-3이마트 1층 ☎ 062-945-7500
롯데마트첨단점 (대표:민경재) [501-024] 광주 동구 금남로4가50번지 ☎ 062-973-9113
하나항공여행사 (대표:김현숙) [501-700] 광주 동구 금남로3가 1-11번지 하나로 텔레콤 1F ☎ 062-419-2000
유니버스여행사 (대표:이점상) [500-04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704-3 ☎ 062-522-2255
모든나라여행사 (대표:박승희)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351-7 2층(전남대정문앞) ☎ 062-521-2100
가람여행사 (대표:정상준) [503-060] 광주 남구 봉선동497-26 3층 ☎ 062-653-5250
신세계이마트점 (대표:윤기주) [501-08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12-13 광주신세계이마트 1층 ☎ 062-360-0166
남해관광 (대표:박향식) [501-02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69-6 [하나투어전문판매점] ☎ 062-225-5544
송광여행사 (대표:나승채) [502-827] 광주 서구 치평동 266-1 2층(상무역출구부근) ☎ 062-383-1133
삼성항공여행사 (대표:심재춘) [500-110] 광주 북구 문흥동1002-1 (조흥은행3층) ☎ 062-261-0088
이마트동광주점 (대표:김용석) [501-080] 광주 동구 계림동100-11 이마트동광주점 1층 ☎ 062-529-7222
하나월드 (대표:김기문) [500-030] 광주 북구 누문동59번지 2층 ☎ 1577-0658

전 남

초원여행사 (대표:서조원) [530-390] 전남 목포시 상동1134] ☎ 061-242-2000